

‘뮤지컬의 감동’ 올가을 영산강서 재현한다

박명성 영산강축제 총감독 위촉
10월8~13일 영산강일원서 열려

“나주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축제를 만들겠다.” 최장수 흥행 뮤지컬 ‘맘마미아’ 한국 공연 제작을 총괄한 박명성 예술감독 약속이다.

나주시는 ‘2024 나주 영산강 축제’ 총감독으로 박명성 (썬신시컴퍼니 예술감독) 을 위촉했다고 10일 밝혔다.

박 감독은 지난해 전남에서 15년 만에 다시 열린 ‘전국체육대회 개·폐회식’ 총감독을 맡아 감동과 환희의 무대 연출로 극찬을 받았던 주인공이다.

나주시는 축제 총감독 위촉에 앞서 후보로 오른 3인에 대한 다각적인 검증을 한 결과 박 감독을 ‘나주 영산강 축제’ 총감독으로 최종 낙점했다.

박 신임 총감독의 임기는 올해 12월31일까지다. 나주 영산강 축제 지휘봉을 잡은 박 총감독은 해남 출신으로 1982년 연

극 배우로 문화예술계에 첫 발을 내디딘 후 40년간 무대감독, 연출가, 공연 프로듀서이자 (썬신시컴퍼니 예술감독) 으로 활동하고 있다.

‘맘마미아’, ‘시카고’, ‘산불’ 등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뮤지컬 한국 공연 제작을 통해 국내 뮤지컬 대중화에 앞장선 대한민국 대표 프로듀서로 통한다.

여기에 FIFA U-20 월드컵 개막식(2017),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개·폐회식(2015) 총감독을 역임해 탁월한 기획력과 연출력을 인정받았다.

박명성 신임 총감독은 “나주의 유구한 역사를 배경으로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오직 나주에서만 볼 수 있는 현대와 미래 지향적인 퍼포먼스를 축제에서 선보임으로써 내년, 내후년이 더 기대되는 축제를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난해 통합 축제로 첫선을 보인 ‘나주 영산강 축제’는 오는 10월8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9~13일 영산강 정원(저류지) 일원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윤병태 나주시장과 박명성 축제 총감독, 안상현 부시장 등이 ‘2024 나주 영산강 축제’ 성공을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윤병태 나주시장은 “2000년 나주 역사

부심을 느끼고 관광객들은 다시 오고 싶은 축제를 박 총감독이 만들어 주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

나주=조대봉 기자

청년후계농업경영인 선발 확대

영농 정착금 최장 3년 지급

나주시가 올해 청년농업인 선발을 확대한다.

나주시는 오는 30일까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를 신청받겠다고 10일 밝혔다.

나주시 청년농업인(청년후계농) 선발 인원은 2022년 22명, 2023년 47명, 올해 65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으며 지난 2018년부터 총 219명의 청년후계농업경영인을 선발하고 있다.

청년후계농업인으로 선발되면 별도의 영농계획 심사 없이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농지를 임차할 수 있고 각종 교육 및 컨설팅 지원과 함께 정착자금을 최대 5억원까지 융자(고정 1.5%, 5년 거치 20년 상환) 받을 수 있다.

영농정착 지원금은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농가 경영비나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독립경영 3년 이하 만 18세 이

상부터 40세 미만 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신청서·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나주시 관계자는 “청년농업인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영농정착 시 겪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속도감 있게 해결해 나가겠다”며 “농촌이 청년들에게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는 이외에도 생산기반 및 6차산업을 위한 체험공간 조성 and 브랜드육성 지원을 위해 ‘청년·후계농업인 영농기반 조성’, ‘청년·4-H 우수과제 창업농 육성’, ‘청년 창업농장 조성’,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지원’, ‘청년농업인 창업스케일업 지원’,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 ‘학사농업인 육성사업’, ‘청년농업인 연구동아리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청년농업인 1:1 멘토링 지원’과 ‘청년농업인 임대농장 운영’ 등을 신규 지원한다.

나주=조대봉 기자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100만원 초과시 분할 가능

나주시가 4월 한달 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나주시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결산법인의 법인소득에 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이달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는 의무사항이다.

해당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인 30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납세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 대상 법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1월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2024년 신고분)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시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납부 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있는 시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김미령 세무과장은 “납세자 편의와 법인지방소득세의 기한내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대봉 기자

‘으뜸한우 브랜드 육성’... 명품 한우 생산 기반 구축

한우 개량사업에 2억원 투입

한우 주산지로 꼽히는 나주시가 명품 한우 육성 기반 구축에 나선다.

나주시는 전남도의 ‘2024년 으뜸한우 송아지 브랜드’ 사업에 선정돼 한우 개량사업 추진을 위한 도비 1억원 등 사업비 2억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혈통이 등록된 고능력 번식 암소 농가에 유전 능력 검사, 선형심사 등 엄격한 평가 기준을 적용, 우량암소와 송아지를 선발·관리하고 으뜸 한우 브랜드

로 육성하는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선 우량암소 생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나주시의 경우 올해 2월 말 기준 암소 사육 비율이 전체 한우 5만 8334두 중 약 70%인 3만5724두에 달해 사업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

나주시는 나주축협, 종축개량협회, 한우협회 등 유관기관·단체와 협력을 통해 4월 중 설명회를 갖고 사업에 참여할 축산 농가를 모집할 예정이다.

농가 모집 후 선형심사, 친자확인 등을 거쳐 으뜸한우 송아지를 선발하게 된다.

이를 통해 오는 9월 나주축협 우(牛)시장에서 ‘전남으뜸한우 경진대회’를 개최해 도내 축산 1번지로서 명품한우 육성체계 구축의 시작을 알릴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나주는 으뜸 한우 사육 및 생산·유통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만 관련 산업이 부족하고 특히 나주 한우의 경쟁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체 브랜드가 없다는 점이 늘 아쉬웠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축산 1번지로서 나주 한우 브랜드가 전국으로 영역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조대봉 기자

나주시 보건소 ‘어르신 건강 식생활 교육’ 운영



나주시가 어르신을 대상으로 ‘어르신 건강 식생활 교육’을 운영한다.

나주시 제공

나주시 보건소(소장 강동렬)는 작은복지관 어르신 대상으로 ‘어르신 건강 식생활 교육’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교육은 지난 2일 남산 경로당을 시작으로 26일 다시면 조동 경로당을 끝으로 10개소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어르신 건강 식생활 교육은 노년기 올바른 식생활 지침 5가지를 소개하는 영양 교육과 다양한 식품군을 활용한 샌드위치 만들기 요리 교육이다.

강동렬 보건소장은 “어르신들이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바란다”며 “건강한 식생활 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대봉 기자

쓰레기 봉투값, 7월부터 20ℓ 1장 250원→380원

나주시는 오는 7월부터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 20리터(ℓ) 기준 가격을 한 장당 250원에서 38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어려워진 서민 생활과 물가 상승률 억제 등을 이유로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을 18년간 동결해 왔으나 최근 계속해서 생활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고 처리비용도 상승해 쓰레기 줄이기 및

처리비용을 현실화를 위한 불가피한 인상이라는 설명이다. 나주시 생활 쓰레기 처리비용 주민부담률은 지난 2022년 말 기준 10%로 전국 지자체 평균 30%에 못 미친다. 그동안 생활 쓰레기 수거와 매립장 운영에 있어 막대한 시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도내 시 지역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과 비교했을 경우 4개 시 평균가격이

733.6원인데 반해 나주는 52%수준인 381.6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인상안이 통과되면 평균가격은 561.6원으로 오른다. 나주시는 최근 소비자정책심의회를 통해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인상안을 결정,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1장당 판매가격은 5ℓ는 80원에서 110원, 10ℓ는 130원에서 200원, 20ℓ는 250원에서 380원, 30ℓ는 360원에서 510원, 50ℓ는 570원에서 900원, 75ℓ는 900원에서 1270원이다.

나주=조대봉 기자